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각 사회의 규범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학은 낙태 허용 여부와 같은 현실 속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윤리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을: 제가 보기에 당신은 ㉠

- ①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③ 도덕 원리의 실생활 적용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④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을: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다.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자 최종 귀착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① 갑: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하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② 갑: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를 수반한다.
- ③ 을: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 ④ 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갑, 을: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져야 한다.

3.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조작이나 왜곡 없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일만 수행하면 된다. 과학 기술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어서는 안 된다.
 을: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과학자의 책무는 객관적 지식의 발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결과 활용이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내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가?
- ② 과학자는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는 일만을 해야 하는가?
- ③ 과학자는 연구 활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가?
- ④ 과학자의 연구 활동은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⑤ 과학자는 주관적 가치를 가설 검증 과정에 개입시켜야 하는가?

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3점]

집단 속에서 이기주의적으로 되어 가는 인간의 성향과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부정의가 지속된다. 따라서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힘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과 배타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도덕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이거나보다는 매우 윤리적이다.	✓	✓		✓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	✓		✓		✓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		✓	✓
정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5. 다음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성(聖)의 드러남이 될 수 있습니다.

<보 기>

- ㄱ. 세속적 세계에 성스러움이 존재한다.
- ㄴ. 인간은 체험을 통해 신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 ㄷ. 신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 ㄹ.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는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측면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나)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타인이나 사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소비를 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이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을: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을 향해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인간은 이러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병: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대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은 생태계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 기>

ㄱ. A: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생명체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B: 생명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ㄷ. C: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ㄹ. D: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류의 양심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는 것은 자선이나 박애의 차원을 넘어선 도덕적 의무이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 전쟁이 수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투원과 민간인에 대한 구분의 원칙, 전쟁의 승리가 가져올 효과보다 부수적 손상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등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① 전쟁은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적국이 침입했을 경우의 방어 전쟁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주권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국가 이익의 극대화는 전쟁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본다.
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규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9.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우리가 육체에 갇혀 지낼 동안은 이데아에 관한 앎을 얻기 어렵다. 죽는다는 것은 순수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갑은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며, ㉡죽음을 통해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이 불멸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고 보며, ㉣죽음은 감각이 상실된 것이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 모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③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⑤ 시민 불복종은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특수한 정의의 종류로서 분배에 있어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즉, 분배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

을: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가상적 상황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을 고려하게 된다.

병: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확립될 때 정의롭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게 된다.

(나)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보 기〉

ㄱ. A: 산술적 비례에 따를 때 분배 정의가 실현되는가?

ㄴ. B: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이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가?

ㄷ.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는가?

ㄹ. D: 재화의 분배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형적 원리에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며, 사형을 대체한 중신 노역형만으로도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을: 법에 의한 처벌은 언제나 범법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행해질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① 갑: 사형 제도를 유용성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 ② 갑: 형벌이 지닌 지속성보다는 강도의 요소를 더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사형 제도는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이다.
- ④ 을: 동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형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범죄 예방과 교화에 있다.

13. 갑, 을 사상가가 서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에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를 하는 사람은 원조를 받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원조해야 한다.

을: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즉 심각한 정치·사회·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갑이 을에게: 원조를 자신이 아닌 의무로 간주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갑이 을에게: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 원조의 목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을이 갑에게: 가난한 국가들이 모두 원조의 대상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을이 갑에게: 차등의 원칙에 따라 빈곤국을 원조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을이 갑에게: 국가 간의 부와 복지 수준 조정이 원조의 목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예(禮)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규정하고 악(樂)은 그 내면의 마음을 고르게 하니, 예는 바깥을 다스리고 악은 그 안을 좋게 바꾸어 주는 것으로, 예악이 바르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을: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며 아름다운 사물은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술의 완벽함은 그 자체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 ① 갑은 예술이 도덕적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예술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예술이 인격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예술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15. ㉠, ㉡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천지가 생긴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생긴 다음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생긴 다음에 ㉠이/가 있고, 그 이후에 부자(父子)가 있다.

○ ㉡은/는 수족(手足)의 관계처럼 서로 화합하며, 길을 갈 때는 기러기 떼처럼 나란히 가야 한다.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는 같고 가지는 다른 것이고, 물에 비유하면 근원은 같고 흐름은 다른 것과 이치가 같다.

- ① ㉠은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상호 대등한 혈연관계이다.
- ② ㉠은 효도와 자애를 서로에게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③ ㉡은 경쟁과 친애(親愛)의 측면을 함께 가진 관계이다.
- ④ ㉡은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되는 관계이다.
- ⑤ ㉠은 ㉡과 달리 상호 간 항렬(行列)을 따져 법도를 지키는 관계이다.

16. 다음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씨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자신의 인격 안의 인간성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 원리이다. 신체는 자아의 일부이다. 자아와의 통합 속에서 그것은 인격을 이룬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사물로 만들 수 없다.

<문제 상황>

A씨는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쾌락을 추구하는 자연적 성향에 따른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고려하세요.
- ② 모든 인격적 존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고려하세요.
- ③ 모든 인격적 존재의 자기에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옳은 행위임을 고려하세요.
- ④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임을 고려하세요.
- ⑤ 자신의 인격이 지닌 목적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임을 고려하세요.

17.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심으로 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셨다.

을: 공산 사회가 되면 분업에 예측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그럴 때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① 갑: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 ② 갑: 노동은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 ③ 을: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 ④ 을: 자본주의의 분업은 인간의 본질 실현을 방해한다.
- ⑤ 갑, 을: 노동을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1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사회적 약자들이 과거의 차별 행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 때문에 받아 온 고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대 정책은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후손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혜는 일반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여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 ①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
- ② 우대 정책은 실질적 평등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우대 정책으로 인해 노력이나 성취가 무시될 수 있다.
- ④ 우대 정책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 ⑤ 우대 정책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이 초래될 수 있다.

19. 다음 칼럼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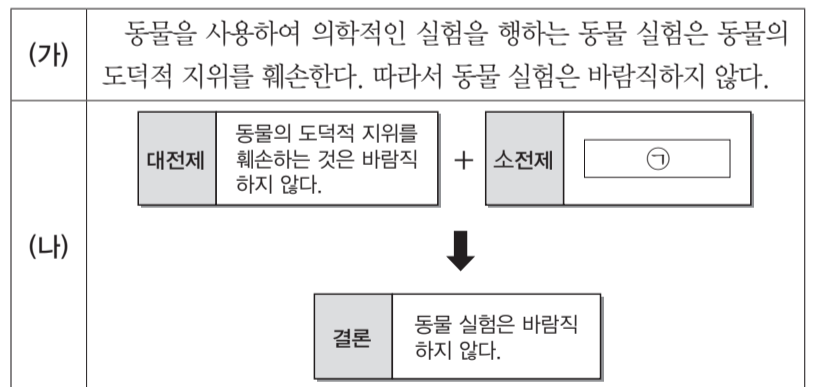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정보를 마음대로 복제를 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정보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작물은 저작자의 것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창작할 의욕이 생겨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보 기>

ㄱ.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ㄴ. 정보는 정보 생산자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ㄷ. 정보는 창작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유재이다.
 ㄹ. 지식 재산권 보장은 정보화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동물 실험만으로는 신약의 효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 ③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④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